

## 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11.12~14)

### 1. 지소미아 관련

#### □ [언론 동향]

- 중국신문망(中国新闻网)은 13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에 도착했으며, 방한 기간 중 한·미·일 3국의 연합참모의장들 간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인용 보도<sup>1)</sup>
- o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·미·일 관계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냄.<sup>2)</sup>
- 국제최신소식(国际最新消息)은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을 강조하는 마크 밀리의 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(读卖新闻)<sup>3)</sup>
- o 12일 일본을 방문한 마크 밀리 의장은 한국에 지소미아를 종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신호를 보내야 하며, 지소미아 종료로 중국, 러시아, 북한에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
- 환구망(环球网)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또한 직접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인용 보도<sup>4)</sup>
- o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동북아 지역안보 유지에 있어 한·미·일이 단결하여 더 강해져야 한다면,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다른 국가로 하여금 한·미·일이 그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
- 인민일보 해외망(人民日报海外网)은 미국 정부가 잇달아 개최되는 한·미 군사위원회회의, 한·미 안보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인용 보도<sup>5)</sup>

1) 「韩美日联合参谋长将举行会议 或讨论韩日军情协定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11. 12)

2) 「韩媒: 韩日军情协定终止在即 驻韩美军司令官表忧虑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11. 13)

3) 「日韩军事协定失效临近, 美军高层连发警告矛头对准中国」, 『国际最新消息』(2019. 11. 14)

4) 「韩美联军司令: 韩日终止军情协定 让人觉得我们太软弱」, 『环球网』(2019. 11. 13)

5) 「美军高层相继访韩 或为向韩施压续签韩日军情协定」, 『人民日报海外网』(2019. 11. 13)

-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에 논의하던 한·미 연합방위태세 점검, 북핵 위협 대응 방안, 전시작전통제권 전환, 주한미군기지이전 등 문제뿐 아니라 지소미아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될 것이라고 인용 보도
- 현재, 미국은 양국의 갈등 조정에는 나서지 않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에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.
- 환구망(环球网)은 11월 13일부터 미국 주요 국정 관료들이 연달아 방한하며 지소미아 연장 압박을 가하는 원인이 중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보도<sup>6)</sup>
  - 칭화대학 국가전략연구원 연구부 钱峰 주임은 13일 环球时报와의 인터뷰에서 “지소미아의 주요 목적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며, 이는 특히 일본에게 중요한 부분” 이라고 강조
    - \* 그 이유는 비록 일본이 선진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, 한국은 지리적 이점과 여러 경로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
  - 또한 환구망은 한국 매체(한겨레)를 인용하여 미국은 한·미·일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데, 이때 한·일 정보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분석
    - \*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“미국의 핵심 목표는 한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전면 참여하는 것이며, 이를 위해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” 이라고 평가
- 국제재선(国际在线)은 미국 정부가 한미 고위급 군사 관련 회의를 통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인용 보도<sup>7)</sup>
- 중국청년망(中国青年网)은 일본 또한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, 일본에게 지소미아 연장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석 보도<sup>8)</sup>

6) 「美多位军政大员接连访韩 拯救韩日军事情报协定」, 『环球网』(2019. 11. 14)

7) 「韩媒：美对韩最大限度施压 只为让日韩继续“在一起”」, 『国际在线』(2019. 11. 14)

8) 「日美促韩维持军事情报保护协定 韩国态度已松动」, 『中国青年网』(2019. 11. 13)

- 지소미아 연장이 일본에 주는 의의로 1) 한국이 지소미아를 외교 수단으로 삼고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와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정당화 하려했음을 명확히 할 수 있고 2)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접근과 화해 노선을 저지할 수 있으며, 한반도 개입 근거 및 기회를 늘릴 수 있게 된다고 분석
  
- 아울러 한·미·일 군사 협력 강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촉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의도 있다고 분석